

국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현황 및 개선 방안*

A Study on Current Status and Improvement Plans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for domest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한 희 정 (Hui-Jeong Han)** , 두 효 철 (Hyo-Chul Doo)***
이 영 지 (Young-Ji Lee)**** , 오 효 정 (Hyo-Jung Oh)*****

초 록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의 지혜와 재능의 집합체로서, 한 국가의 역사성과 예술적·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한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야 할 중요한 기록자원이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제도는 보존과 전승에 목적을 두고 발전해 왔으나 이제는 이에서 벗어나 무형의 문화원천에 문화다양성 및 문화산업을 위해 창조적으로 전승 및 활용하는 자원으로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의 지속적인 보존 및 전승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관련 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해당 기관에서 실제 기록정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의 운영 시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해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무형문화유산기관이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s a collection of community wisdom and talents and it has artistic and cultural values of the nation. And because it represents an identity of the country, it is an important records information resources that we must be inherited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Korea's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ystem has developed with the aim of preserving and transmission, but now it is necessary to take an creative approach as a resource as a resource for cultural diversity and utilization in an intangible cultural sour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maintain systematic management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records information resources in order to continuously preserve, but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a basis for continuous u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improvement plans for the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of domestic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We analyzed the status of the archival reference services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stitutions in consideration of the characteristics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the responsible person to collect opinions and requirements during the service. We suggested the improvement plans through drawing out implication on problems and direction of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키워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무형문화재, 기록정보자원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Archival Information Services, Intangible Cultural Assets,
Record Information Resources

* 이 논문은 2017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6S1A5B8913575).
** 전북대학교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 전임연구원(freebirdhhj@naver.com) (제1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enc12@naver.com)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석사과정(youngd0514@hanmail.net) (공동저자)
***** 전북대학교 기록관리학과 조교수, 문화융복합아카이빙연구소(ohj@jbnu.ac.kr)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18년 5월 24일 논문심사일자 : 2018년 6월 11일 게재확정일자 : 2018년 6월 15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9(2): 199-224, 2018. [http://dx.doi.org/10.14699/kbiblia.2018.29.2.199]

1. 서론

1.1 연구배경 및 필요성

무형문화유산은 공동체의 지혜와 재능의 집합체로써 유형문화유산을 만들어내는 토대이자 사회문화 발전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이에 세계 각국은 전통문화자원을 발굴 및 보존하여 문화 정체성을 확립하는 한편,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높이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1998년 문화재 정보화 사업을 시작으로 문화재 전 분야에 걸친 조사연구 및 각종 행정과정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DB화하기 시작했다(이재필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전승 단절의 위기를 겪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정책 및 제도가 일반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내는 데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일반 이용자들은 무형문화유산을 이해하고 기억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으며, 어디에서 접근해야 하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저조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오정심 2015). 따라서 이제는 무형문화유산 보전과 진흥의 원칙을 기반으로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면서 무형문화유산을 찾고 즐기는 사람이 늘어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기록정보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 제도는 보존과 전승에 목적을 두고 발전해 왔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을 유지하고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면서 역사성과 예술성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구호' 중심의 무형문화유산 제도는 무형문화유산의 저변을 확대하

는 데 한계가 있으며, 오히려 정부의 지원 없이는 발전하기 어려운 구조를 만들어냄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국민의 무관심, 사회적 수요의 부족 등으로 인한 무형문화유산 전승 단절 위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관심과 의식 수준을 제고하고 수요를 활성화하여 자생력을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오정심 2015, 30).

아카이브(Archives)는 가치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고 수집하여 영구적으로 보존하고, 아울러 이러한 기록물들을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고 서비스할 책임을 가진 기관이다. 최근 보존기록관이 아카이브로서 기록정보서비스의 중요성을 인지하면서 이용자를 위한 정보제공 서비스가 확대되어가고 있다(이희원, 김순희 2009, 37). 같은 맥락에서 무형문화유산기관 역시 아카이브로서 가치가 있는 기록물을 선별하여 수집하고 보존하는 일뿐만 아니라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기관의 역할 범위를 점차 확대해 나가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한 국가의 역사성과 예술적·문화적 가치를 동시에 지니고 있으며,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해주기 때문에 세대에 걸쳐 계승되어야 할 중요한 기록자원이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도 중요하다.

1.2 연구목적 및 방법

최근 국민의 문화향유에 대한 욕구가 증대됨에 따라 특색 있는 문화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무형문화유산에 대

한 인식도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흐름에 부응하기 위하여 이용자들의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과 관심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는 기록정보서비스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사회적 수요를 높일 수 있는 국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이 기록정보자원으로써 가지고 있는 특성을 분석하여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유형을 도출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국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황 분석은 국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 전체 종목을 다루는 통합형 기관 3곳과 특정 종목을 다루는 주제형 기관 3곳의 웹사이트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현황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해당 기관에서 기록정보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를 대상으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운영 시 애로사항과 개선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심층 면담을 진행하였다. 심층 면담은 전화 인터뷰 및 서면 인터뷰의 형태로 대상 기관 공통 질문과 분석 결과에 따라 각 기관의 개별 질문으로 진행하였다. 이를 통해 현재 국내 무형문화유산기관이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과 방향성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 후 기록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1.3 선행연구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무형문화유산의 보존 및 전승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2003년 유네스코에서 무형문

화유산을 보호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한 이후로 무형문화유산 제도 및 정책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편이다. 이와 관련하여 임재해(2007)는 유네스코 협약 이후로 무형문화재의 가치에 대해 재인식할 필요성을 제기하면서 무형문화재 전승 방식이 기존의 원형보존 정책에서 보다 유연하고 개방적이고 창조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질 것을 강조하였다. 그의 후속 연구(2009)에서도 무형문화의 생명력은 창조력에 있으며, 자기만의 독자적 문화 기능을 창조적으로 발휘해서 전승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창조적 계승을 위해서는 현대적인 문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능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융통성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그 외 무형문화유산의 기록화와 관련된 연구로 이재필(2010) 연구와 백주현, 김순희(2010) 연구가 있다. 이재필(2010)은 무형문화재 기록화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항과 기록화 범위에 대해 제시하였으며, 백주현, 김순희(2010)는 시·도지정 무형문화재 기록화 현황을 분석한 후 무형문화재 보존과 전승을 위한 기록화 방안을 제안하였다.

한편, 무형문화유산의 활용에 대한 연구도 최근 비교적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김용범(2009)은 무형문화유산의 원형을 유지하면서 문화산업·문화콘텐츠 산업의 재료로 활용된 사례를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무형문화 자원의 고부가가치 상품화 전략을 제안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정부와 기업, 기능보유자들 간의 긴밀한 연관 관계를 모색함으로써 무형문화 자원이 무한한 재화 가치 창출의 소재가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이윤선(2009)은 무형문화유산의 활용에 있어

지역과 지역민들의 자주성이 중요하며, 지역문화콘텐츠를 보다 더 신중하고 치밀하게 보존하되 창조적으로 변용해나가는 적극적인 자세를 강조하였으며, 한희정 외(2016) 연구에서도 디지털 환경에서는 중앙기관이 무형문화유산 기록을 모두 '소장' 하기보다는 유관기관들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협업 기반의 무형문화유산 활용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주로 무형문화유산의 제도적 측면, 관리적 측면에서 접근한 것으로, 이를 활용하기 위한 서비스 측면에서의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이는 무형문화유산이 '전승'을 중심으로 발전했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을 통해 기록정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이 상당 부분 갖추어진 만큼, 이제는 무형문화유산을 공유하고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비스 제공 방안을 고민해 볼 시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2.1 무형문화유산의 개념과 특징

'무형문화유산'의 개념은 유형문화유산 중심

의 세계문화유산에 대응하여 탄생한 개념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무형문화유산은 유형의 문화유산이 아닌 세대에 걸쳐 계승·상속할 만한 가치를 지닌 과학, 기술, 관습, 규범 따위의 민족·사회 또는 인류의 문화적 소산으로서의 문화양식, 무형문화재 또는 그 정신적 소산물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정의는 개념적 정의일 뿐 사회적 합의를 담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무형문화유산은 다음의 사항을 표현하는 정신적·기술적 소산물인 유형물까지 포함하는 넓은 개념으로 보는 것이 좀 더 타당하다. 첫째, 세대와 세대를 거쳐 전승되어야 한다. 둘째, 인간과 주변 환경 즉 자연의 교류 및 역사 변천 과정에서 공동체 및 집단을 통해 끊임없이 재창조되는 것이어야 한다. 셋째, 공동체 및 집단에 정체성 및 지속성을 부여해야 한다. 넷째, 문화 다양성 및 인류의 창조성을 증진해야 한다. 다섯째, 공동체간 상호 존중 및 지속가능발전에 부합해야 한다(아태무형유산센터 2010, 240).

무형문화유산은 단절되지 않고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살아있는 유산으로서, 전통성과 현대성이 공존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면서 변화되는 요소까지 포괄함과 동시에 정체성과 연속성을 지니며, 한 개인이나 집단이 배타적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즉, 무형문화유산은 한 개인이 소유하는 유형의 자산이 아니며 공유되고 전승됨으로써 현재를 기점으로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고리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무형문화유산은 양식적 타월함이 아닌 문화적 전형성을 중시하는 대표성의 성격을 지닌다. 무형문화유산은 기본적으로 공동체 속에서 생겨난 것으로, 특정 집단에서 인정하는 '전통과 창조적 소

산'으로서 대표성을 지니고 있다면 역사적 연원이나 예술적 가치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무형문화유산에 포함될 수 있다(문화재청, 아태무형유산센터 2010, 15; 정수진 2013, 106).

2.2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개념에 대한 법률적 정의 및 명확한 학술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는다(한희정 2016b, 40). 다만, 국립무형유산원 행정규칙에서 “무형유산 기록정보 자원”이라는 용어가 일부 사용되고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기록정보자원이라는 용어가 더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립무형유산원 행정규칙 제2조에서는 기록물을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형유산의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 도서, 대장, 카드, 도면, 시청각기록물, 전자기록(디지털 기록) 등 모든 형태의 기록물”로 정의내리고 있다. 그리고 제18조에서는 이러한 기록물을 무형유산 기록정보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지식정보자원관리법』 제2조에서는 ‘지식정보자원’을 국가적으로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고 학술·문화 또는 과학기술 등에 관한 디지털화된 자료 또는 디지털화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자료로 정의내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종합해보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 자원은 무형문화유산의 관리, 보존 및 이용 가치가 있는 모든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을 통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무형문화유산을 기록화 하는 단계에서 생산되는 문서, 대장, 카드, 도서, 도면, 사진·필름, 음성·

영상, 행정박물 등을 모두 포괄한다. 그리고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은 과거의 즉각성과 동시에 현재와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 문화자산이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 자원을 잘 정리하여 현재와 미래에 잘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 아카이브 대상은 지정 무형문화유산에서 비지정 무형문화유산까지 그 대상을 확대해 나가고 있으며, 이렇게 정리·보존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은 전수교육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의 공연·전시·방송·출판 등 문화콘텐츠로도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을 직접 생산하거나 소장하고 있는 기관은 생각보다 다양하며, 예상되는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자료 수집대상과 소장 자료는 <표 1>과 같다(이재필 2017, 13; 한희정 2016b).

2.3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의 특성

무형문화유산의 내재된 가치를 증대시키는 것에서 나아가 새로운 가치를 발굴·확대하여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새롭게 재창조할 수 있도록 무형문화유산 활용을 위한 방안이 새롭게 모색되어야 한다. 무형문화유산을 활용한다는 것은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나 기능을 훼손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이를 잘 살려 이용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현재화하고 대중화하는 것과 관련된 행위이다. 이와 관련하여 문화재청은 체계적인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의 전자적 관리 및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

〈표 1〉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수집대상

구분	수집대상	
조사연구 및 기록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 지정학술연구 • 무형문화재 정기조사 • 무형문화유산 자원조사 • 해외 한민족 무형유산 자원조사 • 전승현황조사 • 무형문화재 기록화 및 구술채록 • 무형문화유산 학술활동 • 무형문화유산 기증기탁 • 무형문화유산 전승 커뮤니티 조사 	보고서, 회의록, 등재신청서, 업무일지, 도서, 도록, 영상, 음원, 이미지, 포스터, 안내책자, 전승활동교재, 도구, 재료, 복식, 박물관자료, 수장품, 각종 홍보물 등
전승 및 연구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형문화재 지정 • 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인정 평가 • 이수자 심사 평가 • 제도개선, 정책관련 연구 •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등재 • 중요무형문화재·중요민속자료 대관(필름) • 무형문화재분과 문화재위원회 회의 • 전승활동 	
활용촉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연, 전시, 교육 • 국가무형문화재 공개행사 모니터링 • 언론 홍보 • 기증·기탁 기록물 관리 • 전승공예품 관리 	

* 출처: 이재필(2017), 한희정(2016b)를 수정·보완함

서비스 확대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를 추진하고 기록정보서비스를 위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국립무형유산원훈령 제6호). 이는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의 목적이 무형문화유산의 보존뿐만 아니라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유추해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기록정보서비스의 유형은 크게 검색 및 열람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검색 및 열람 서비스는 이용자가 원하는 기록을 찾을 수 있도록 검색도구를 제공하고 열람할 수 있게 하는 서비스이며, 부가가치 서비스는 기록의 가공, 해

석 작업 등을 통해 각종 콘텐츠 및 전시물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마지막으로 활용촉진 서비스는 기록정보의 이용을 촉진하는 서비스로서 홍보, 견학, 행사 등이 대표적인 서비스이다(한국기록관리학회 2016, 237).

한편,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는 앞서 설명한 일반적인 기록정보서비스 유형 외에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에 따라 제공되는 서비스들이 있다. 가장 대표적으로 부가가치 서비스 중 공연 서비스가 있다. 국립무형유산원의 경우 공연 인프라를 적극 활용한 무형문화재 공연을 통해 향유계층을 확대하고 인기·비인기 종목을 아우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민에게는 고품질의 문화향유기회

를 제공하고, 전승자에게는 열려있는 공연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가치를 공유하고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외 활용촉진 서비스 중에는 기증·기탁 서비스와 판매 서비스가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생산자가 기록물을 직접 소유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 이용자들이 이들 기록물에 접근하기 매우 어려운 편이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관리체계가 보유자 및 전승자 중심으로 되어있고, 주로 보존에 중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폐쇄성에 따른 접근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최근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물에 대한 기증 및 기탁을 보다 촉진하여 무형문화유산의 접근성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무형문화유산 기관들은 관련 기록물들을 기증·기탁을 받아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판매 서비스는 무형문화유산 전승주체(보유자, 명예보유자, 전수교육조교, 이수자 등)들

이 생산한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을 판매할 수 있도록 기반을 제공하는 서비스이다. 이는 전승주체와 이용자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데 기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한국기록관리학회(2016, 238)와 이희원, 김순희(2009, 52)가 제시한 기록정보서비스 유형과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을 고려하여 <표 2>와 같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유형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기관별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비교분석하였다.

3.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현황 분석

본 장에서는 최근 국내 무형문화유산기관들이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현황을 조사·

<표 2>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유형

구분		내용
검색 및 열람 서비스	검색 서비스	기관 및 소장기록 안내, 이용안내 서비스, 참고 서비스, 온라인 검색(통합검색), 검색도구, 소장기록 기술정보, 검색메뉴얼
	열람 서비스	방문열람 예약, 이용자유형별 열람, 정보공개, 대출(상호대차), 온라인 전문열람(사본신청), 복사(촬영), 열람 환경 및 시설
부가가치 서비스	전시	상설전시, 특별전시, 온라인전시
	공연	상설공연, 특별공연
	기록콘텐츠 개발	이용자 유형별 맞춤형콘텐츠, 교육용 콘텐츠
	이용자교육	교육프로그램, 강좌, 세미나, 편찬 사업
	연구지원	연구조사 서비스, 전문가 서비스, 법률지원 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	체험	이용자 대상별 체험
	홍보	책자 발간 및 출판, 매체 홍보 및 마케팅, 커뮤니티 구축
	행사	이벤트, 대외협력 외연확대
	기증·기탁	기증·기탁
	판매	전통문화공예품

분석하여 의미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분석 대상으로는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기관 중 전체 중목을 다루는 '통합형' 무형문화유산기관 3곳(국립무형유산원(이하 '무형유산원'), 한국문화재단(이하 '문화재단'),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이하 '아태센터'))와 특정 중목을 다루는 '주제형' 무형문화유산기관 3곳(국립국악원(이하 '국악원'), 국립극장, 국립민속박물관(이하 '민속박물관'))을 각각 선정하였으며, 앞서 제시한 <표 2>를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다.

3.1 검색 및 열람 서비스

기록물 검색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검색도구를 이용하여 기록물을 검색하는 과정과 관련된 일체의 서비스 활동이며, 기록물 열람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기록물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서비스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검색 서비스는 기관 소개와 소장기록목록을 보여주는 기관 및 소장기록안내, 검색 이용 방법을 설명해주는 이용안내 서비스, 찾고자 하는 자료의 검색을 도와주는 참고정보 서비스, 검색 시 기관 내 검색뿐만 아니라 기관 외 소장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검색(통합검색), 검색도구 여부, 소장기록 기술정보 여부, 검색 매뉴얼 제공 여부 등으로 세분화 할 수 있다. 또한 열람 서비스는 방문열람 예약, 이용자 유형별 열람, 정보공개 여부, 다른 소장처의 자료를 신청한 곳에서 받아볼 수 있는 대출 상호대차 서비스, 온라인 전문 열람, 복사 및 촬영 가능여부, 기록물 열람 환경 및 시설 제공여부로 세분화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무형문화유산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검색 및 열람 서비스 현황은 <표 3>과 같다.

<표 3> 무형문화유산기관의 검색 및 열람 서비스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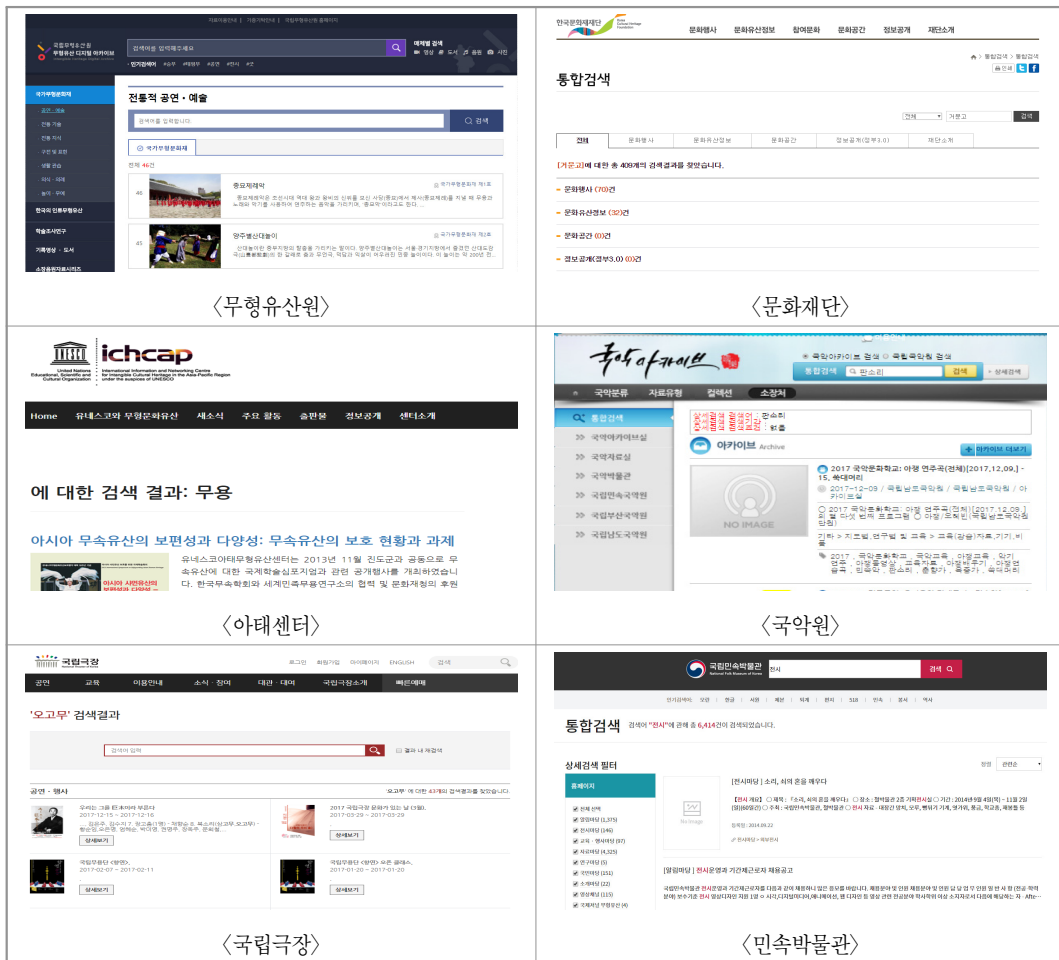
구분	통합형			주제형			
	무형유산원	문화재단	아태센터	국악원	국립극장	민속박물관	
검색 서비스	기관 및 소장기록 안내	○	△	X	○	○	○
	이용안내 서비스	○	○	X	○	○	○
	참고정보 서비스	△	○	X	○	○	○
	온라인 통합검색	X	X	X	○	X	X
	검색도구	○	○	○	○	○	○
	소장기록 기술정보	○	○	X	○	○	○
	검색매뉴얼	△	X	X	X	X	X
열람 서비스	방문열람 예약	○	X	X	X	○	X
	이용자 유형별 열람	X	○	X	X	X	○
	정보공개	○	○	○	○	X	○
	대출(상호대차)	○	X	X	X	X	X
	온라인 전문열람(사본신청)	○	○	○	○	○	○
	복사(촬영)	○	-	X	○	○	○
	열람 환경 및 시설	○	○	X	○	○	○

○: 해당 서비스 제공, X: 해당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 해당 서비스 일부 제공

검색 서비스의 경우 아태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들이 유사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온라인 통합검색 서비스와 검색매뉴얼 서비스는 매우 미흡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태센터가 무형문화유산과 관련된 기록정보자원을 디지털로 가공, 제작하여 네트워크를 통해 보급, 확산이 목적인 기관이기 때문으로, 이를 위해서 아태센터는 정보공유체제구축, 무형문화유산보호활동 인식제고, 무형문화유산

보호관련 공동체 조직 등을 통한 부가가치, 활용촉진 서비스를 주로 제공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검색도구는 검색 서비스 중 유일하게 모든 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이다. 제공되는 검색도구 중 주제어 및 키워드 검색은 모든 기관이 제공하고 있으며, 그 외 원문 DB 검색, 인벤토리 검색, 매체별 검색, 자료 유형별 검색 등을 제공하고 있는 기관도 있다(그림 1) 참조).



〈그림 1〉 무형문화유산기관 검색도구

그 외에 기관 및 소장기록 안내 서비스와 이용안내 서비스, 참고정보 서비스, 소장기록 기술정보 서비스는 아태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제공하고 있지만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다. 예컨대, 문화재단은 기관소개 및 주요 업무, 공연, 전시 등의 활동을 주로 소개하고 있으며, 타 기관에 비해 소장기록 안내 서비스는 다소 부족한 편이다. 그리고 이용안내 서비스의 경우 무형유산원이 검색방법과 자료신청방법, 검색 시 유의사항, 라키비움 이용안내, 자료현황, 기증안내 등 이용과 관련된 내용들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그러나 그 외 대부분 기관들은 이용시간 및 방법 등의 안내에 그치고 있다. 참고정보 서비스는 모든 기관이 대체로 웹사이트 상에서 민원 게시판 및 질문게시판 등을 운영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재단은 청담부패신고, 관람 후기, 전자민원창구 등 온라인 참고정보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소장기록 기술정보

서비스 역시 대부분의 기관에서 자료 유형별로 유용한 기술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 검색 서비스 중 가장 부족한 부분은 온라인 통합검색 서비스이다. 온라인 통합검색은 타 기관의 소장 자료까지 통합적으로 보여주는 서비스로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관 중 유일하게 국악원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국악원은 “국악 아카이브” 구축을 통해 민속국악원, 남원 민속국악원, 진도 남도국악원, 부산국악원 등 타 기관이 소장하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그림 2〉 참조). 그러나 나머지 기관들은 자관의 소장 자료를 통합 검색할 수 있지만, 타 기관의 소장 자료까지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검색 서비스는 제공하지 않고 있다. 그 외에 검색매뉴얼 서비스는 무형유산원이 유일하게 제공하고는 있으나, DB 검색 시 띄어쓰기 유의사항을 안내하는 정도로 그치고 있어 제공되는 서비스 수준은 상당히 미흡한 편이다.



※ ‘관소리’란 키워드로 검색했을 경우, 아카이브, 국악박물관, 국립민속박물관 등 소장처별 검색을 제공함

〈그림 2〉 국악아카이브 온라인 통합검색 서비스

열람 서비스의 경우 온라인 전문열람 서비스와 복사(촬영) 서비스는 대부분의 기관이 모두 제공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태센터를 제외한 기관들 모두 열람 환경 및 시설 등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이용자 유형별 열람 서비스는 문화재단과 민속박물관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열람예약 서비스는 무형유산원과 국립극장 두 기관만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문화재단은 가족열람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속박물관은 어린이박물관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무형유산원은 스테디룸 예약 및 도서 예약 신청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정보공개 서비스 역시 대부분 기관에서 서비스하고 있으며, 특히 무형유산원과 문화재단은 정보공개 방법, 절차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반면, 국립극장은 정보공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유일한 기관이다. 열람 서비스 중 상호대차 대출 서비스는 유일하

게 무형유산원의 라키비움인 “책마루”에서 “책이름 서비스”란 이름으로 제공하고 있다.

3.2 부가가치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는 기록의 가공 등을 통해 각종 콘텐츠 및 전시물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기록관의 잠재적 이용자들이 기록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다가서는 서비스이다. 부가가치 서비스는 전시, 공연, 기록콘텐츠 개발, 이용자 교육, 연구지원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국내 무형문화유산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부가가치 서비스 현황은 <표 4>와 같다.

무형문화유산기관이 제공하는 전시 서비스는 크게 상설전시, 특별전시, 온라인전시로 구분되어 있다. 먼저, 상설전시 및 특별전시 서비스는 오프라인에서 제공되는 전시 서비스로 역시 아태센터를 제외한 대부분의 기관이 서비스

<표 4> 무형문화유산기관의 부가가치 서비스 현황

구분	통합형			주제형			
	무형유산원	문화재단	아태센터	국악원	국립극장	민속박물관	
전시	상설전시	○	○	X	○	○	○
	특별전시	○	○	X	○	○	○
	온라인전시	△	X	○	X	X	△
공연	상설공연	○	○	X	○	○	○
	특별공연	○	○	X	○	○	○
기록 콘텐츠 개발	이용자 유형별 맞춤형콘텐츠	○	X	X	○	X	X
	교육용 콘텐츠	○	X	○	○	X	○
이용자 교육	교육프로그램	○	○	○	○	○	○
	강좌, 세미나	○	○	X	○	X	○
	편찬 사업	○	○	○	○	X	○
연구 지원	연구조사 서비스	○	X	X	X	X	○
	전문가 서비스	○	○	○	X	X	○
	법률지원 서비스	X	○	X	X	X	X

○: 해당 서비스 제공, X: 해당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 해당 서비스 일부 제공

하고 있다. 예컨대, 문화재단은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를 시설에 상주하도록 하여 작품전 및 초대전 등 특별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국악박물관은 국악기 및 국악 관련 영상자료 등을 상설전시 하는 등 각 기관들은 성격에 맞게 상설 및 특별전시를 운영하고 있다. 무형유산원과 국립극장 등 대부분의 무형문화유산 기관들의 경우 오프라인 상에서 다양한 전시 서비스를 비교적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다.

반면, 아태센터는 오프라인전시 서비스가 아닌 온라인전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E-지식관 및 온라인 전시관을 통해 각종 프로젝트 성과물 및 출판물, 멀티미디어 자료 등을 온라인전시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다. 그 외에 민속박물관은 상설전시 서비스를 이미지와 음성 안내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그림 3〉 참조).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상 전시 서비스와 더불어 가장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공연 서비스이다. 공연은 판소리, 전통춤과 같은 일반 공연도 있지만 공예기술 등을 시연해서

보여주는 행사도 있다. 우리나라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가 매년 1회 이상 해당 중요무형문화재의 기·예능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이는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존중하려는 취지로 도입된 제도이다. 따라서 매년 무형문화유산의 기·예능을 보여주는 공연 서비스는 무형문화유산의 가장 핵심적인 서비스이며, 이에 따라 무형문화유산기관 대부분 상설공연과 특별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단은 “국가무형문화재전수교육관”을 운영하여 상설공연장을 통해 정기발표공연, 상설공연 풍류한마당, 국내외 초청공연, 판소리, 민요, 탈춤, 가야금 등의 다양한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의 집”을 운영하여 전통예술공연 오고무, 선녀춤, 시나위, 풍물놀이 및 전통의례 재현 등의 공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살아있는 기록 그 자체이다. 즉, 기존의 기록물은 유형의 형태를 지닌 과거의 산물인 경우가 많지만 무형문화유산은 무형



〈그림 3〉 온라인 전시 서비스

의 형태를 지닌 살아 숨 쉬는 산물이기 때문에 기존의 유형중심 기록관리 체계나 서비스 개념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기관만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유형의 시각이 아닌 무형의 특성을 고려한 시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공연 서비스는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무형문화유산기관만의 독특한 기록정보서비스의 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 앞서 언급했듯이 무형문화유산의 기·예능 공개를 위한 공연 서비스는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도입된 제도로서 기록정보서비스의 목적과도 부합되는 제도이다.

전시와 공연이 무형문화유산 기록 그 자체를 보여주는 '생산자' 중심의 서비스라면 기록콘텐츠 개발, 이용자 교육, 연구지원 등의 서비스는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이다. 즉, 이들 서비스는 이용자들이 무형문화유산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지속가능성을 보다 강화시킨다. 특히, 무형문화유산 교육프로그램은 전문가를 위한 교육과 일반이용자를 위한 교육을 구분하여 제공되고 있다. 전문가를 위한 교육인 전수교육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어 있으며, 전수교육을 하지 않으면 지정이 해제되는 등의 강제 조항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또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빙 사업을 통해서 구술기록, 학술기록, 공연기록 등을 온라인상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예컨대, 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유산 전문교육, 사회교육 2개 분야에서 13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전승자, 대학교수, 관련 분야 종사자 등 전문 강

사진을 통해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문화재단 역시 문화유산교육, 문화유산답사, 한국전통공예학교 등을 통해 체계화된 전문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민속박물관도 전문가, 일반인, 장애인, 청소년을 위한 전문가 양성 및 진로탐색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이용자 교육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강좌 및 세미나, 편찬사업 등을 다양하게 펼치고 있다. 연구지원 서비스는 무형유산원의 경우 기록보존 업무 및 구술채록 업무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문화재단은 유물보존처리가이드 및 문화재발굴조사 연구 지원 등 전문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아태센터는 무형유산 아날로그 자료 디지털화 지원 및 지침서를 발간하여 연구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록콘텐츠 개발 서비스 중 이용자유형별 맞춤형 콘텐츠 서비스는 두 기관만 제공하고 있으며, 교육용 콘텐츠 서비스는 네 기관이 제공하고 있다. 무형유산원은 외국인, 일반인, 대학생, 중학생 등을 대상으로 이용자 유형별 국가무형문화재 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문화재단, 아태센터 등도 무형문화유산 교육 콘텐츠 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3.3 활용촉진 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란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한 인지도를 높이기 서비스 유형으로 잠재적 이용자를 위한 문화행사 및 견학, 체험 등의 적극적인 홍보 활동 등을 말한다. 활용촉진 서비스는 체험, 홍보, 행사, 기증·기탁, 판매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국내 무형문화유산기관이 제공하고 있는 활용촉진 서비스 현황은 <표 5>와 같다.

〈표 5〉 무형문화유산기관의 활용촉진 서비스 현황

구분		통합형			주제형		
		무형유산원	문화재단	아태센터	국악원	국립극장	민속박물관
체험	체험 및 참여	○	○	X	○	○	○
홍보	책자발간 및 출판	○	○	X	○	○	○
	매체홍보 및 마케팅	○	○	X	○	X	○
	커뮤니티 구축	△	X	○	X	X	○
행사	이벤트	○	○	X	○	○	○
	대외협력 외연확대	○	○	○	X	X	○
기증·기탁	기록물 기증·기탁	○	X	X	X	○	○
판매	전통문화공예품	X	○	X	X	X	△

○: 해당 서비스 제공, X: 해당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 해당 서비스 일부 제공

활용촉진 서비스에서 가장 활발하게 제공되고 있는 서비스는 체험 및 참여로, 이는 무형문화유산의 특성과도 가장 잘 부합되는 서비스이다. 체험 서비스는 교육 서비스와는 달리 이벤트적인 성격이 강하고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은 반면, 무형문화유산에 부담 없이 접근하여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저변을 보다 확산시키기 위해 진행된다. 체험 서비스는 무형문화유산을 알리는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무형문화유산 기관들이 제공하고 있다. 예컨대, 무형유산원의 경우에는 유·초·중·일반인을 대상으로 체험교실, 청소년 캠프 및 중학생 자유학기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공예·예능 2개 분야 국가무형문화재 이수자 26명의 강사진이 체험 및 참여 활동을 담당하고 있다. 문화재단은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김장, 전통매듭, 사물놀이, 한지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립극장은 공연무대 꾸미기 및 청소년 진로 체험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다.

한편, 무형문화유산의 홍보는 출판, 매체홍보, 커뮤니티 구축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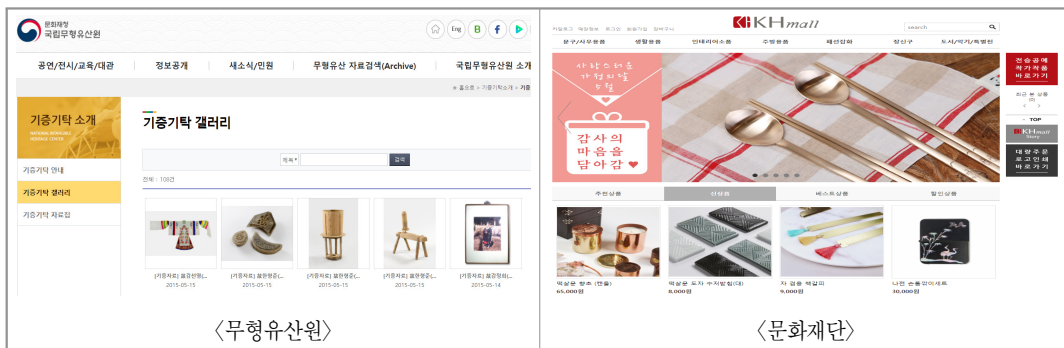
공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무형문화유산 기관들이 책자 발간, 잡지 출판, 유튜브 및 네이버 캐스트 채널을 운영하고 있다. 무형유산원의 경우는 블로그 기자단을 운영하여 해외, 국내 무형문화유산을 취재하여 글을 게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민속박물관은 “우리민속 지킴이” 자원봉사를 운영하여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있다. 아태센터는 무형문화유산 관련 공동체, 단체, 개인 실연자, 관련 비정부기구 및 시민사회단체 등의 주요 이해관계자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관련 활동가 및 기관(학술기관, 공동체, 박물관 및 문화센터, 기록관, 예술기관, 유네스코 카테고리 2센터, 개인 전문가 등) 간의 인적 교류 지원과 공공행사 조직 등을 통해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 외에 홍보를 위한 행사 이벤트로 대부분 UCC(User Created Contents) 공모전을 진행하며, 문화재단은 어린이 국악경연대회 및 전국대학생 마당놀이 축제를 진행하고 있다. 국악원은 창작국악동요, 국악, 전통춤 경연대회를 통해 홍보촉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증·기탁 및 판매 서비스는

무형문화유산의 특징적인 서비스 중의 하나이다. 무형문화유산의 기록물은 개인이나 단체가 직접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현재 이에 대한 관리 및 보존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관리체계가 보유자 및 전승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여기에서 파생되는 기록물은 지금까지 큰 관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무형문화유산의 폐쇄성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형문화유산 기록물을 기증·기탁 받아 디지털 아카이빙하고 이용자들에게 제공함으로써 무형문화유산의 접근과 이용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한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곳은 무형유산원이다. 무형유산원은 기증·기탁 받은 기록물 컬렉션을 온라인상에 공개하여 이를 보다 활성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다. 나아가 무형문화유산 관련 판매 서비스도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홍보 수단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특히, 판로가 취약한 전승자에게 판로를 확보해줌으로써 작품제작 의욕을 고취시키고, 전통공예의 우수성을 국내외에 알리기 위해 보유자의 작품전 출품작 등의 전승자

작품을 구입하여 해외 한국문화원 등 관련 기관에 한국 전통문화 홍보자료로 대여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는 『무형문화재법』상 무형문화재의 진흥에 관한 사업과 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재단에 한국무형문화재진흥센터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통해 전통공예품 인증 및 전통공예품 구입, 대여, 전시 등 전통공예품은행 운영 주체이자 효율적인 무형문화재 진흥사업의 추진 체계로서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리고 전문가 컨설팅과 사용자 협업을 통해 현대적 감각의 실용적 상품을 개발하고, 전시를 통한 유통, 마케팅, 홍보, 판매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이용자들에게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도록 하고 있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보유자 및 전승자들의 전승활동을 지원하는 데도 일조하고 있어 무형문화유산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데 기여를 하고 있다(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6). 현재 문화재단은 전승공예 작가의 작품 약 300여 품목을 인터넷 몰을 통해 판매하고 있으며, 민속박물관은 문화상품을 연구, 개발하며 판매 문의를 받고 있다(〈그림 4〉 참조).



〈그림 4〉 기증·기탁 및 전통문화공예품 판매

3.4 시사점

그동안 우리나라 무형문화재 제도가 보존과 전승에 치우쳐 오히려 문화의 창의성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판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형문화재 ‘원형 유지’ 원칙은 무형문화재의 박제화 현상을 낳았으며, 그 폐쇄성으로 인해 현대인들과의 정서적 공감과 대중화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의 중요성은 문화적 표현 자체보다는 무형유산을 통해 한 세대에서 다음 세대로 전해지는 풍부한 지식과 기술에 있으며, 무엇보다도 가속화되는 세계화의 체제에 맞서 문화 다양성을 유지하는데 있다. 따라서 이제는 무형문화유산의 ‘원형 유지’ 원칙에서 벗어나 창조적 계승·발전 및 전통과 현대의 조화를 꾀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특히 무형문화유산이 갖는 역사적·문화적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확대하기 위한 노력으로써,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국내 무형문화유산 기관이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주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무형문화유산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록정보자원은 분산되어 있어 이용자들이 무형문화유산에 접근하기가 매우 불편하다. 검색 및 열람 서비스 제공 현황을 보면, 기관에서 소장한 자료에 대한 검색 및 열람 서비스는 비교적 잘 제공되고 있으나 타 기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타 기관의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검색 서비스나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무형문화유산 자체에 대한 인지도도 낮은 상황에서 접근마저 어렵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이용가능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둘째,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대중화를 위한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부족하다. 무형문화유산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이용자 유형별 열람 서비스나 이용자 맞춤형 콘텐츠 개발, 연구지원 서비스 등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서비스 개발을 보다 적극적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다. 과거에 비해 학술연구와 관련된 기록정보서비스는 풍부해진 편이지만 여전히 일반 이용자의 관심과 흥미를 끌 만한 요소는 부족하며, 참고정보 서비스의 경우도 FAQ 및 게시판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이용자 유형에 따라 보다 다양한 형태의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무형문화유산기관 유형은 크게 통합형 기관과 주제형 기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 기관이 제공하는 기록정보서비스의 성격과 내용은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기관들이 다루는 무형문화유산의 범위와 내용이 기록정보서비스 유형 및 내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예능이나 기능 중심의 주제형 기관이든 이를 모두 다루는 통합형 기관이든 그 유형에 상관없이 기록정보서비스의 표준화가 가능하며, 기관 간 연계 서비스 또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넷째,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상 기관 대부분의

서비스가 전시와 공연에 치중되어 있으며, 주로 오프라인 상에서 제공되고 있다. 공연의 경우 디지털 아카이빙을 통해 영상기록물로 제공하는 것을 확대해 나가고 있지만 전시의 경우는 여전히 오프라인 중심으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이용자들에게 보다 다양하고 풍부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온라인 기반의 전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섯째, 무형문화유산 관련 학술자료나 음반 및 영상에 대한 디지털 아카이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메타데이터가 부족해 검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또한, 해당 기록정보자원을 직접 다운로드해서 일일이 확인해야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사진의 경우 전문가가 아니면 관련 정보를 파악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적용 가능한 개선방안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해 심층 면담을 수행하였다. 면담은 무형유산원, 문화재단, 국악원, 민속박물관 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8년 5월에 실행하였으며, 이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모든 기관들이 공통적으로 가장 중심을 두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는 각 기관이 보유한 기록영상, 도서, 유물 관련 정보 등을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특히 각 기관들이 보유한 기록의 특성에 따라 공연, 전시, 도서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한, 이용자 요구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시스템 및 웹사이트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자료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정보공개 시 다른 권리침해와 균형을

이루기 위한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다음으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가장 큰 장애요소로는 2차 저작물 저작권, 저작권, 초상권 등의 권리 및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이슈와 이용자들의 과도한 민원제기, 온라인 서비스의 어려움 등을 지적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의 특성상 공연영상, 2차 저작물들을 열람·전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초상권, 저작권 등의 문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체험, 공연 관람, 교육 등 기록정보서비스가 주로 현장에서 이루어지는데 이에 대한 이용자들의 과도한 민원제기로 인한 업무의 부담감을 호소하였다. 그 외에도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자료와 새로운 자료를 빠르게 웹사이트에 업데이트해야 하는데 무형문화유산과 맞지 않는 시스템과 유물, 문화재 등의 국가 귀속 등의 행정적 절차의 문제로 인해 늦어지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하였다.

기록정보서비스의 활용 촉진을 위한 홍보 방법은 주로 각 기관 모두 신문, 지역방송 등을 활용하거나 SNS를 활용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SNS는 홍보 콘텐츠가 주로 공연영상, 전시자료 등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유튜브와 네이버TV 캐스트 채널을 주로 활용하였다.

마지막으로 각 기관에서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기록정보서비스에 대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기관들은 새로운 기록정보서비스를 계획하는 것보다 기존 서비스를 보완하여 기록정보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 더욱 효율적인 방안이며 이를 위한 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4.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개선방안

본 절에서는 문헌 조사를 통해 분석한 무형문화유산 기관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과 심층 면담을 통해 수립된 애로사항 및 요구사항에 따라 각 서비스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한다.

4.1 검색 및 열람 서비스

최근 무형문화유산의 디지털 아카이빙 구축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료에 대한 접근점이 보다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무형문화유산 기관들의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른 분야에 비해 여전히 검색과 열람 서비스가 미흡한 부분이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의 검색 및 열람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무형문화유산 통합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온라인 기반의 통합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검색 및 열람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기관에서 소장한 자료에 대한 검색 및 열람 서비스는 비교적 잘 제공되고 있으나 타 기관의 소장 자료에 대한 접근은 상당히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타 기관의 소장 자료를 검색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검색 서비스나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통합검색방식을 통해 모든 데이터 검색이 가능한 서비스가 확대되는 추세인 만큼, 기관 간 협업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이용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무형문화유산에 접근할 수 있는 통합 접근점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무형문화유산기관 실무자들을 대상으로 한 면담 결과, 온라인 통합검색에 대해 운영적 면에서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이에 대한 요구는 매우 높다고 응답한 바 있다. 현재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나 사이트를 최대한 활용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홈페이지 개편 등도 고려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는 무형문화유산기관의 실무자들 역시 이용자의 요구를 고려한 기록정보서비스 개선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앞으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가 이용자 중심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 예측할 수 있다.

둘째, 무형문화유산의 기록정보자원 검색을 위한 검색도구의 다양화 및 지능화가 필요하다. 현재 디지털 아카이빙으로 구축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들은 매우 간단한 메타정보만 제공되고 있어, 원하는 정보를 찾기 위해서는 해당 기록을 각각 다운로드하여 일일이 내용을 확인해야 하므로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텍스트 원문, 영상, 음성 등을 검색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검색도구를 개발하여 제공함으로써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 최근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이용한 지능형 검색도구 개발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료에 적용가능한 지능형 검색도구 개발이 필요하다.

셋째,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을 위한 메타데이터 확장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했듯이 현재 제공되는 메타데이터는 너무 간략하여 이용자들이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사진의 경우 제목에 나

은 무형문화유산 종목 외에 파악할 수 있는 정보가 거의 없다. 영상이나 음성, 텍스트도 디지털 아카이빙이 상당히 많이 진행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정보 외에는 파악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용자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확장하여 제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4.2 부가가치 서비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정서적 공감과 대중화를 위해서는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이용자를 세분화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한데,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관에 제공하는 서비스는 이용자를 고려한 서비스라고 보기에는 다소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에서는 무형문화유산의 부가가치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해야 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첫째,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전시 서비스가 보다 확대될 필요가 있다. 현재 무형문화유산 전시 서비스는 주로 오프라인 중심으로 되어 있다. 국내 무형문화유산 기관이 많지 않기 때문에 국민들이 무형문화유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접근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서는 온라인 기반의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미 국가기록원은 가상현실(VR 파노라마) 기법을 활용하여 온라인 전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도 한글 고문헌 가상 전시관, 궁

중기록화 가상 전시관, 민족기록화 가상 미술관, 승탑비문 가상 기록관, 역사인물초상화 가상 전시관 등을 서비스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도 이러한 가상현실 기법을 활용한 온라인 전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용자들의 관심과 접근성 등을 높일 필요가 있다. 나아가 대중과 미디어의 관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참여+전시’ 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야 한다. 기록정보서비스 현황을 살펴보면 전시는 부가가치 서비스 측면, 체험은 활용촉진 서비스 측면으로 나누어서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살아있는 무형문화유산으로서의 보전을 위해서는 이를 구분하기 보다는 통합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특히 테크놀로지의 발전은 VR 등을 활용한 프로그램 개발 등을 가능케 함으로써 통합기록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이용자 유형에 따른 다양한 맞춤형 부가가치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관 중 국립무형유산원과 국립국악원은 이용자 그룹을 구분하여 비교적 다양한 교육프로그램과 기록콘텐츠를 개발하여 제공하고 있는 편이지만, 그 외 기관은 이용자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가 상당히 미흡하다. 따라서 이용자의 수준과 흥미를 고려한 기록콘텐츠 개발이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 외에도 전체적으로 전문가를 위한 연구지원 서비스가 많이 부족한 편이다. 예컨대, 연구지원 서비스 중 연구조사 서비스는 무형유산원에서만 제공하고 있으며, 법률지원 서비스는 문화재단에서만 제공하고 있다. 법률지원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무자 면담에서 저작권이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장애가 되는 요소로 언급된 바 있다. 무형문화유산 소유권의 주체를 결

정하는 문제와 더불어 특허문제, 악보나 영상 녹화본, 음성자료 등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와 배타적 소유권 문제, 소유권의 존속기간 문제, 지적 재산권을 인정하기 위한 신규성, 차별성, 독창성과 같은 객관적 기준 마련 문제 등은 정책 및 제도적으로 풀어나가야 할 문제이다. 더불어 이와 관련된 법률지원 서비스 역시 무형문화유산 기관이 제공해야 할 전문적인 서비스의 분야이다.

셋째,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한 이용자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라키비움은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하여 이용자에게 다양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다. 최근 라키비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으며, 무형유산원은 라키비움을 통해 무형유산 관련 전문도서와 기증도서 등 2만 여권의 도서와 국제무형유산영상축제 상영작품 등 각종 시청각 자료를 열람할 수 있게 서비스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실무자는 라키비움을 통해 무형문화유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공간과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과, 자료의 신뢰성과 다른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정보 공개의 균형을 이루는데 중점을 두고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하였다. 이는, 라키비움 기반의 기록정보서비스를 통해 그동안 폐가식으로 운영함으로써 쉽게 접하지 못했던 기록정보자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 정보를 한 곳에서 즐기려는 이용자의 요구 사항까지 충족할 수 있어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요 기반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라키비움을 통해서

각 기관들이 소유한 기록정보자원의 상호대차 서비스도 확대할 수 있어 향후 무형문화유산기관의 열람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주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3 활용촉진 서비스

무형문화유산 기관의 활용촉진 서비스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주로 무형문화유산의 체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가 주를 이루고 있었다. 체험 및 참여는 이용자들이 무형문화유산에 부담 없이 접근하여 경험하고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무형문화유산을 알리고 홍보하는 데 매우 유용한 방법이지만 무형문화유산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방법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무형문화유산의 저변을 확대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협업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활용촉진 서비스를 제안하는 바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다양한 유형의 무형문화유산 커뮤니티를 구축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관에서 홍보를 위해 활용하고 있는 커뮤니티는 자원봉사 및 블로그 기자단 정도로 다양한 편은 아니다. 반면, 아태센터의 경우 무형유산 전문가 및 공동체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무형문화유산 네트워크를 다변화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특성에 맞는 독자적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무형문화유산 보호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펼치고 있다. 무형문화유산은 사람과의 관계에 의해 전승되어 유지되기 때문에 전승 및 보존을 위한 커뮤니티, 문화교류를 위한 커뮤니티, 홍보를 위한 커뮤니티 등 다양

한 유형의 커뮤니티 구축이 중요하다. 나아가 이러한 커뮤니티 활동을 적극 지원하여 전승자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에서 벗어나 일반 시민들의 일상적인 삶 속에 깊숙이 파고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둘째, 무형문화유산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홍보, 기증 및 기탁 등의 활용촉진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거버넌스는 참여하는 주체들 간의 협의와 합의를 통해 자발적이며 유연한 방식으로 협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저기 산재해 있는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을 수집하고, 기증·기탁 사업을 보다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 거버넌스 구축이 필요하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은 개별 기관이나 조직, 개인이 소장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학계를 비롯한 민간 영역에서의 관심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무형문화유산 기관이 연구조사를 통해 정기적으로 관련 기록정보자원을 수집하고 있지만 이러한 중앙집중식 수집 방식은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에 국립무형유산원은 무형문화유산지기 제도를 도입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 수집을 위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도모하고 있다. 그 외에도 무형문화재 전승자와 유족들이 보관하고 있는 무형유산 자료에 대한 기증·기탁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이러한 기증·기탁을 통해 수집된 기록정보자원들은 문화재적 가치를 위한 보존에 그치지 않고 전시, 공연, 콘텐츠 제작, 학술 연구 등의 원천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다만 국립무형유산원의 경우 지정문화재 중심으로 이러한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지정 무형문화유산까지 수집대상으로 하기에

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따라서 무형문화유산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국립무형유산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러한 활동들이 다른 기관 및 조직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보다 근본적으로 무형문화유산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기관 및 조직과 개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네트워킹이 중요하므로, 이들 간의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전국에 산재해 있는 전수관을 기반으로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무형문화유산 홍보, 기증·기탁, 판매 등과 관련된 활용촉진 서비스를 더욱 확장해 나가야 한다. 이용자는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전수관의 존재여부와 각 전수관에서 교육을 실행하고 있는 무형문화유산의 종목을 파악하기 어렵다. 특히, 기증·기탁 서비스는 기증·기탁하고자 하는 기록물이 해당 기관의 성격에 맞아야 이관 가능하지만, 기증자는 어느 기관에 기증해야 하는지 파악하기 어렵다. 전수관을 통한 협업네트워크 구축은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으며, 현재 기관, 지역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에서 벗어나 탈기관, 탈지역 기록정보서비스로의 발전이 가능하다.

5. 결론 및 제언

우리나라 무형문화유산은 원형 유지에 목적을 두고 발전해 왔다. 이는 전통문화의 맥을 이어가며 역사성과 예술성을 확보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나, 무형문화유산의 저변을 확대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무형문화유산은 국가의 정체성을 대변하는 중요한 자원이므로 이를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최종 목적이 있으며, 이를 위해 무형문화유산 특성에 따른 기록정보서비스 유형 및 현황을 파악하여 비교분석한 후, 실무자 면담을 통해 개선방안을 제안하였다.

먼저, 현황분석을 통해 도출한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의 문제점은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의 분산성으로 인한 접근의 어려움, 이용자 중심의 기록정보서비스 부족, 기록정보서비스 비표준화, 온라인 기록정보서비스의 미흡,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의 부족으로 인한 검색의 어려움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검색 및 열람 서비스, 부가가치 서비스, 활용촉진 서비스 측면에서 개선방안을 제안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검색 및 열람 서비스 측면에서는 무형문화유산 통합 서비스 시스템 구축을 통한 온라인 기반 통합검색 서비스 제공을 통해 타 기관의 소장 자료 접근 및 상호대차 서비스 등을 실행할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그리고 무형문화유산의 기록정보자원 검색을 위한 검색도구의 다양화 및 지능화를 위해 텍스트 원문, 영상, 음성 등을 검색할 수 있도록 다양한 검색도구를 개발하고 메타데이터를 확장하여 이용자의 접근성을 증대시켜야 한다. 나아가 메타데이터 표준화를 통해 기록정보자원의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부가가치 서비스 측면에서는 VR 서비

스 기법이나 가상 전시관 등의 무형문화유산 온라인 전시 서비스 확대를 통해 무형유산에 대한 이용자의 관심과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또한, 연구지원 및 법률지원 등 이용자유형별 맞춤형 부가가치 서비스 개발과 도서관, 기록관, 박물관의 기능을 복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라키비움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환경에서 이용자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 개발이 요구된다.

마지막으로 활용촉진 서비스 측면에서는 전문가 및 공동체 네트워크 구성 등 다양한 무형문화유산 커뮤니티 구축, 거버넌스를 기반으로 한 홍보, 기증·기탁 등의 활용촉진 서비스를 개발, 전수관을 기반으로 한 협업네트워크 구축 등 네트워킹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를 통해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접근성과 활용성을 높임으로써 무형의 문화자원을 향유하는 객체가 전승자만이 아닌 '국민'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무형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해서는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상징적 가치를 부여하고, 나아가 무형문화유산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 모두가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무형문화유산 기록정보서비스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을 제안한 연구로, 기록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실무자 입장에서의 개선요구사항을 수렴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실제 기록정보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에서의 요구사항 수렴이 미비했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한 향후 후속연구로 이용자유형별 요구분석 및 각 기관의 서비스 품질평가가 이뤄져야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 국가기록원. 2015. 공공기록물 서비스 표준(v1.0). NAK 21:2015(v1.0).
- 김용범. 2009. 무형문화유산의 문화적 활용과 상품화 전략. 『문화정책논총』, 21: 209-225.
- 문화재청, 아태무형유산센터. 2010. 『무형문화유산의 이해: 2003년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해설집』. 대전: 문화재청, 아태무형유산센터.
- 백주현, 김순희. 2010. 시·도지정무형문화재 기록화 현황 및 개선 방안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0(1): 77-97.
- 아태무형유산센터. 2010. 『무형문화유산 보호와 지적재산권 - 동향과 과제』. 대전: 아태무형유산센터. <<http://www.ichcap.org/kor/ek/sub8/sub1.php>>.
- 오정심. 2015. 무형문화유산 활성화를 위한 수요자 인식에 관한 실증적 분석.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5(9): 29-36.
- 이윤선. 2009. 전통문화유산의 지역문화콘텐츠 활용에 대한 고찰. 『한국민속학』, 49: 333-378.
- 이재필. 2010. 무형문화재 기록보존의 쟁점과 과제. 『인문콘텐츠』, 19: 141-158.
- 이재필. 2017. 국립무형유산원의 아카이브 현황과 향후 정책 방안. 『무형유산』, 2: 5-20.
- 이희원, 김순희. 2009. 보존기록관(Archives)의 기록정보서비스 표준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기록관리학회 학술발표논문집』, 35-60.
- 임재해. 2007. 무형문화재의 가치 재인식과 창조적 계승. 『한국민속학』, 45: 237-285.
- 임재해. 2009. 무형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방향의 재인식. 『비교민속학』, 39: 439-491.
- 전북연구원. 2013. 전라북도 무형문화유산활용 지역발전방안 구상 연구용역.
- 정수진. 2013. 무형문화재에서 무형문화유산으로. 『동아시아문화연구』, 53: 91-116.
- 한국기록관리학회. 2016. 『3판 기록관리론: 증거와 기억의 과학』, 성남: 아세아문화사.
-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2016.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 기본계획 수립 연구(2017-2021)』. 서울: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
- 한희정. 2016a. 국내 무형문화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비블리아학회지』, 27(2): 95-134.
- 한희정. 2016b. 『무형문화유산 메타데이터 스키마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전북대학교 대학원, 기록관리학과.

[웹사이트]

- 국립국악원 국악아카이브. [online]. [cited 2018.4.5]. <<http://archive.gugak.go.kr/ArchivePortal/index.jsp>>.

- 국립국악원 e-국악아카데미. [online]. [cited 2018.4.5]. <<http://academy.gugak.go.kr/main.do>>.
- 국립국악원. [online]. [cited 2018.4.5]. <<http://www.gugak.go.kr>>.
- 국립극장 공연예술 디지털 아카이브. [online]. [cited 2018.4.5]. <<http://archive.ntok.go.kr>>.
- 국립극장. [online]. [cited 2018.4.5]. <<https://www.ntok.go.kr>>.
- 국립무형유산원 라키비움 책마루. [online]. [cited 2018.4.2]. <<http://library.nihc.go.kr>>.
- 국립무형유산원 무형유산 디지털 아카이브. [online]. [cited 2018.4.2].
<<http://www.iha.go.kr/main/ArchiveType/getTreasureTypeList.nihc?mode=typeA>>.
- 국립무형유산원. [online]. [cited 2018.4.2]. <<http://www.nihc.go.kr>>.
- 국립민속박물관 어린이박물관. [online]. [cited 2018.4.5].
<<http://www.kidsnfm.go.kr/nfmkid/index.do>>.
- 국립민속박물관. [online]. [cited 2018.4.5]. <<http://www.nfm.go.kr>>.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꾸리에. [online]. [cited 2018.4.11].
<<http://ichcourier.ichcap.org/ko/home-2/>>.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온라인전시관. [online]. [cited 2018.4.11].
<<https://artsandculture.google.com/partner/ichcap>>.
- 유네스코 아태무형유산센터. [online]. [cited 2018.4.11]. <<http://www2.ichcap.org>>.
- 한국문화재단 독서당. [online]. [cited 2018.4.2].
<http://library.chf.or.kr/TotHomepage1/USMN000_1.asp>.
- 한국문화재단 한국문화의집. [online]. [cited 2018.4.2].
<<https://www.kous.or.kr/main/view;jsessionid=F14FF584FF3727C4CB42F33E7B8F61EA>>.
- 한국문화재단 한국의집. [online]. [cited 2018.4.2]. <<https://www.koreahouse.or.kr/ko/main>>.
- 한국문화재단. [online]. [cited 2018.4.2]. <<http://www.chf.or.kr>>.

[관련 법령 및 규정]

- 『국립무형유산원 기록물 등의 생산, 수집 관리 및 기록관 운영에 관한 규정』
- 『국립무형유산원 행정규칙』
- 『무형문화재법』
- 『지식정보자원관리법』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eak, Ju-Hyun and Soon-Hee Kim. 2010. "A Study on the Status of and Improvement Plan

- for Documentation of City · Province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0(1): 77-97.
-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and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2010. *Understand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Daejeon: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 Han, Hui-Jeong. 2016a. “A Study on the Construction and Utilization of Digital Archives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Korea.” *Journal of the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27(2): 95-134.
- Han, Hui-Jeong. 2016b.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Metadata Schema for Intangible Cultural Heritages*. A doctoral dissertation. The Graduate School Chonbuk National University. Archives & Record Management.
-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2010. *Safeguarding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 Trends and Challenges*. Daejeo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Centre for Asia and the Pacific.
<<http://www.ichcap.org/kor/ek/sub8/sub1.php>>.
- Jeonbuk Institute. 2013. A Public Funded Research on Regional Development through the Uti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in Jeollabuk-do(province).
- Jung, Soo-Jin. 2013. “From the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o the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Study East Asian Culture*, 53: 91-116.
- Kim, Yong-bum. 2009. “Cultural Use and Commercialization of Intangible Cultural Resources.” *The Journal of Cultural Policy*, 21: 209-225.
- Korea Cultural Heritage Policy Institute. 2016. *Study on Establishment of Basic Plan for the Preservation and Promotion of Intangible Cultural Properties(2017-2021)*. Seoul: Korea Cultural Heritage Policy Institute.
-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2016. *3rd Edition Records & Archives management: Science of evidence and memory*. seongnam: Aseamunhwasa.
- Lee, Hee-Won and Soon-Hee Kim. 2009. “A study on Standard Developmen Archival Reference Services for Archives.” *Korean Society of Archives & Records Management academic papers*, 35-60.
- Lee, Jae-Pil. 2010. “The Issue and Subject of Documenting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Humanities Contens*, 19: 141-158.
- Lee, Jae-Pil. 2017. “Status and Policy Issues of Archive in National Intangible Heritage Center.” *Korean Journal of Intangible Heritage*, 2: 5-20.

- Lee, Yoon-Sun. 2009. "A Study on the Use of Contents of Local Cultural Heritage." *The Korean Folklore*, 49: 333-378.
- Lim, Jae-Hae. 2007. "A New Understanding and Creative Handing Down of a Intangible Cultural Property." *The Korean Folklore*, 45: 237-285.
- Lim, Jae-Hae. 2009. "Ognition of Intangible Cultural Assets Preservation and Transmission." *Asian Comparative Forklore*, 39: 439-491.
- National Archives of Korea. 2015. Standard for the Public Records Service(v1.0). NAK 21:2015 (v1.0).
- Oh, Jung-Shim. 2015. "An Empirical Analysis on Citizens" Awareness of an Intangible Cultural Heritag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15(9): 29-36.